LG화학-LG카드, 인테리어 공동 마케팅

LG화학과 LG카드는 6월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테리어 할부금융 상품 도입 등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 제휴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양사 관계자는 “인테리어 시장에서 관련기업과 카드사가 공동 마케팅을 벌이기는 처음이며, 고객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제휴에 따르면, LG화학과 LG카드는 양사의 우수 인테리어점 및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할부 금융 상품을 제공한다.

상품은 이자율이 10%대이며, 제휴점 계약을 맺은 LG화학 데코빌점과 LG인테리어클럽에 공사를 의뢰한 LG카드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은행 대출상품과 달리 까다로운 절차와 복잡한 서류 없이 현장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사는 또 우수 LG인테리어클럽 이용시 다양한 할부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0.3%의 myLG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이와 함께 인테리어 B2B 시장에서 카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LG화학 건축장식재 대리점을 LG카드 가맹점화하고, 대리점에서 자재를 구입하는 LG인테리어클럽에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LG화학과 LG카드는 7월부터 본격적인 인테리어 할부 금융서비스를 실시하고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가맹점 시상, 무이자할부, 사은·경품 제공 등 다양한 공동 판촉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휴를 통해 LG화학 데코빌점과 LG인테리어클럽은 현금 이외 지불수단을 확보하게 돼 판매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인테리어 시장에서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LG화학 산업재사업본부장 박규석 부사장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정책과 소비자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가 맞물려 리모델링 인테리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휴는 양사에게 큰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16>